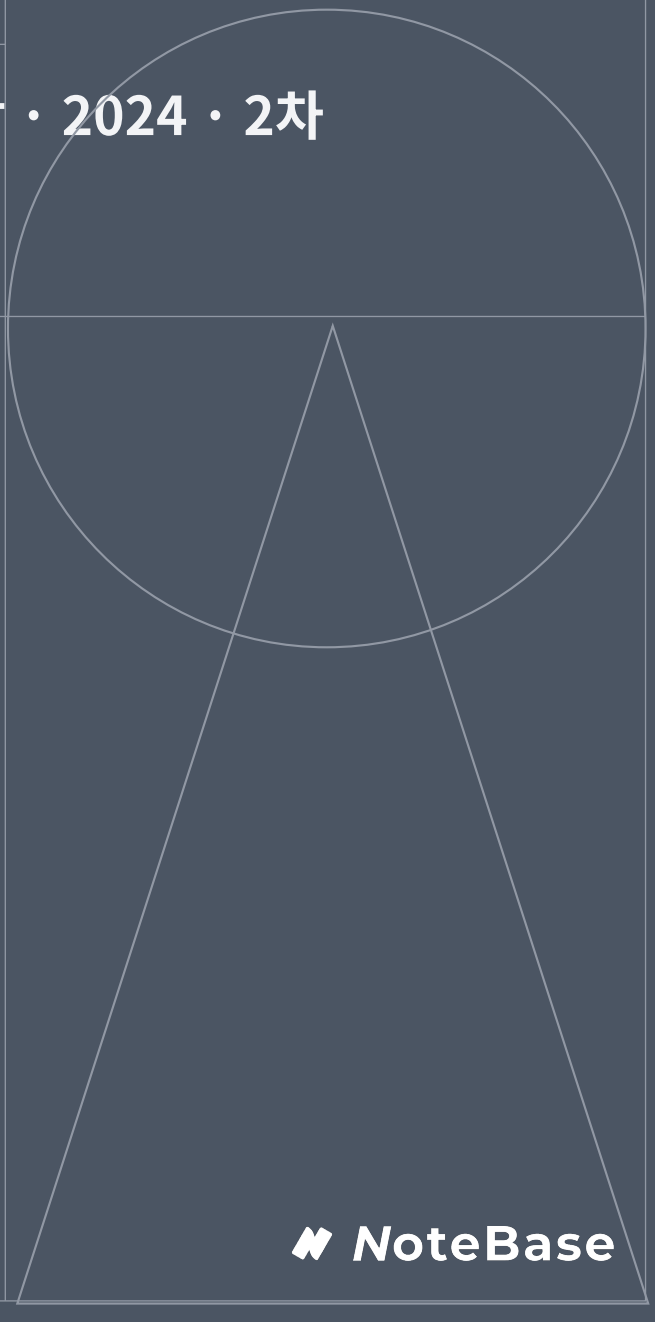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4 · 2차

문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통 건축물은?

◯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서 2층으로 된 집이라 하였다.
◯ 연회와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였다.
◯ 마루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

① 재(齋)
② 누(樓)
③ 대(臺)
④ 전(殿)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보고 누, 재, 대, 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누: 마루 아래를 비워 통행이 가능하게 만든 고상식 건물로, 경관 감상과 연회, 휴식에 쓰는 경우가 많다.
재: 거처하거나 학문을 닦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성격의 건물이다.
대: 흙이나 돌을 쌓아 높인 평평한 단 또는 그 위 공간으로, 건물 형식이라기보다 기반의 성격이 강하다.
전: 궁궐, 관아, 사찰의 중심이 되는 격식 높은 본채 건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재'라는 판단이다. 재는 독서, 수양, 거처 또는 제례 준비와 관련된 건물이지, 마루 밑 통행이 가능한 2층 누각 형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제시된 설명은 누에 해당한다.
2번 O: 누는 마루 아래가 비어 있어 사람이 지날 수 있고, 높은 마루에서 경치를 보며 연회나 휴식을 하는 데 이용한 건물이다. 이규보의 『사륜정기』에서 2층 집으로 표현한 점도 누의 성격과 맞는다.
3번 X: 틀린 부분은 '대'라는 판단이다. 대는 높게 쌓은 단이나 터를 뜻하므로, 연회와 휴식에 쓰는 2층 건물을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설명은 누에 대한 것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전'이라는 판단이다. 전은 궁궐이나 사찰의 중심 본채를 뜻하는 격식 높은 건물로, 마루 밑 통행이 가능한 개방적 누각과 성격이 다르다. 올바르게는 제시된 건축물은 전이 아니라 누이다.

오답 포인트

누와 대는 모두 높다는 인상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누는 사람이 올라가 활동하는 건물이고 대는 그 건물을 받치는 단이나 터에 가깝다. 재는 수양과 거처의 공간이고, 전은 중심 본채라는 용도 차이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건축물 문제는 먼저 용도를 본다. 그다음 마루 아래 통행 가능 여부, 층수, 개방성 같은 구조 단서를 붙이면 누, 재, 대, 전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누는 높은 마루의 개방형 건물, 재는 수양 공간, 대는 높인 단, 전은 중심 본채이다.

NoteBase

문 2. 안압지[雁鴨池, 월지(月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시대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안압지로 나타난다.

② 월지는 『삼국사기』에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③ 화초를 심고 진기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④ 궁내에 연못을 파고 돌을 쌓아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을 본뜬 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동사강목』에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압지와 월지의 명칭, 조성 시기, 그리고 『삼국사기』와 『동사강목』에 나타난 기록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월지는 통일신라 궁원 연못의 명칭으로 이해되고, 안압지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널리 보이는 후대 명칭이다. 『삼국사기』는 문무왕 14년인 674년 2월 궁내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며 화초와 진기한 새,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고 적고, 『동사강목』은 안압지라는 명칭과 무산십이봉, 임해전 관련 설명을 함께 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사강목』에는 이 연못이 안압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안압지라는 명칭이 조선시대 문헌에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고려시대 조성된 것'이라는 표현이다.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문무왕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올바르게는 '월지는 통일신라 문무왕 때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이다.

③ O
『삼국사기』에는 궁내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든 뒤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고 적혀 있다. 선지의 핵심 진술은 이 기록과 부합하므로 옳다.

④ O
『동사강목』에는 궁내에 연못을 파고 돌을 쌓아 무산십이봉을 본뜬 산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보인다. 따라서 무산십이봉을 본뜬 산 조성 기록이 『동사강목』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월지와 안압지를 서로 다른 장소로 오해하거나, 후대 명칭인 안압지와 조성 시기인 통일신라를 뒤섞으면 ② 같은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명칭 혼동보다 시대 혼동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압지·월지 문제는 먼저 문헌명과 시대를 짝지어 판단한다. 『삼국사기』가 나오면 문무왕 14년, 통일신라 조성 기록을 떠올리고, 안압지라는 명칭이 나오면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후대 호칭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월지는 신라 시기의 이름으로 이해되고, 안압지는 조선시대에 굳어진 후대 명칭이다.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 문무왕 14년인 674년이다.

NoteBase

문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등고선은?

주곡선(主曲線) 간격의 1/2로 산정(山頂), 안부(鞍部), 경사가 고르지 않은 완경사지, 그 외에 주곡선만으로는 지모의 상태를 명시할 수 없는 곳을 가는 파선으로 표시한다.

① 간곡선(間曲線)
② 계곡선(計曲線)
③ 분수선(分水線)
④ 조곡선(助曲線)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등고선의 종류 중 간곡선, 계곡선, 분수선, 조곡선을 간격과 용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간곡선은 주곡선만으로는 지형 판독이 부족한 완경사지, 산정부, 안부 등에 주곡선 간격의 1/2로 넣는 보조 등고선이다.
계곡선은 여러 주곡선 중 일정 간격마다 굵게 표시하여 표고를 읽기 쉽게 하는 기준 등고선이다.
조곡선은 간곡선으로도 부족할 만큼 더 완만하거나 평탄한 곳의 작은 기복을 나타내는 더 세밀한 보조 등고선이다.
분수선은 물이 양쪽 유역으로 갈라지는 능선상의 경계선으로, 등고선의 종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로 산정하고 가는 파선으로 표시하여 주곡선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지형을 보충한다.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계곡선은 표고 읽음을 쉽게 하려고 일정한 주기마다 굵게 표시하는 등고선이다. 틀린 표현은 '주곡선 간격의 1/2로 산정하고 가는 파선으로 표시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굵은 실선 계열의 기준선이다.
③ X: 분수선은 빗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계를 잇는 선이다. 틀린 표현은 '등고선의 한 종류'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유역을 나누는 지형 해석선이지 보조 등고선이 아니다.
④ X: 조곡선은 매우 완만한 지형의 작은 기복을 더 세밀하게 나타낼 때 쓰는 보조 등고선이다. 틀린 표현은 '주곡선 간격의 1/2'이다. 실제로는 간곡선보다 더 세밀한 간격으로 쓰이며, 문제의 설명은 간곡선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간곡선과 조곡선은 모두 보조적으로 넣는 등고선이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주곡선 간격의 1/2'와 '가는 파선'이라는 단서를 읽지 못하면 ④로 흔들리도록 만든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 등고선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준 간격을 본다. 주곡선의 1/2이면 간곡선, 그보다 더 세밀한 보조선이면 조곡선으로 판단하면 된다. 계곡선은 굵게 강조하는 기준선이고, 분수선은 아예 등고선이 아니라는 점으로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간곡선은 주곡선의 반, 조곡선은 그보다 더 세밀, 분수선은 유역 경계선이다.

NoteBase

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방재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③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 유형 중 방재공원의 법정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과 방재공원의 설치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방재공원은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의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이다.

핵심 구분

주제공원은 각각의 주된 설치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방재공원은 재난 시 대피·구호 거점이라는 기능이 핵심이고, 문화공원은 도시의 문화적 특징 활용, 수변공원은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 활용,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문화공원이다.
틀린 표현: 방재공원
올바른 표현: 문화공원

② O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이라는 설명은 방재공원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수변공원이다.
틀린 표현: 방재공원
올바른 표현: 수변공원

④ X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도시농업공원이다.
틀린 표현: 방재공원
올바른 표현: 도시농업공원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공원 이름이 아니라 설치 목적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①의 문화적 특징, ③의 수변공간, ④의 도시농업은 각각 다른 주제공원의 정의인데, 방재공원의 핵심 문구인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을 잡지 못하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공원 문제는 명칭보다 무엇을 활용하는지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지를 대응시켜 판단한다. 재난 대피·구호 거점이면 방재공원이고, 문화적 특징이면 문화공원이며,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이면 수변공원이고, 도시농업이 주목적이면 도시농업공원이다.

암기 포인트

방재는 재난 대피·구호, 문화는 문화적 특징, 수변은 하천가·호숫가, 도시농업은 정서순화·공동체의식 함양이다.

NoteBase

문 5. 멀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양 비옥도를 감소시킨다.

②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③ 토양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감소시킨다.

④ 겨울철 토양이 동결되는 것을 완화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멀칭의 기본 기능인 수분 보전, 잡초 억제, 토양온도 완화, 비옥도 영향의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멀칭은 토양 표면을 유기물이나 무기물로 덮어 수분 증발을 줄이고 잡초 발생과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는 관리기술이다.
판단 기준은 멀칭이 토양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이다.
유기물 멀칭은 분해되면서 토양 유기물 공급과 비옥도 유지·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양 비옥도를 감소시킨다는 진술은 일반적 멀칭 효과로 보기 어렵다.
틀린 부분은 "비옥도를 감소시킨다"이다.
올바르게는 유기물 멀칭은 분해되면서 토양 유기물과 양분 보전에 기여하여 비옥도 유지 또는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② O
멀칭은 빛을 차단하고 토양 표면 환경을 안정시켜 잡초 종자의 발아와 생육을 억제할 수 있다.

③ O
멀칭의 대표적 기능은 토양 표면으로부터의 직접 증발을 줄여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④ O
멀칭은 지온의 급격한 하강을 완화하여 겨울철 토양 동결을 줄이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일부 미숙 유기물 피복에서 일시적 양분 경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멀칭 효과로 과장하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멀칭의 기본 기능을 묻고 있으므로 비옥도 감소라는 단정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먼저 확인한 뒤, 각 선지를 멀칭의 표준 기능과 대조하면 된다. 수분 보전, 잡초 억제, 온도 완화는 기본 효과이고, 비옥도를 일반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반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멀칭은 수분을 지키고 잡초와 온도 변화를 눌러 주는 피복이며, 일반 효과를 비옥도 감소로 보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6. 「조경기준」상 조경의무면적 내에서 $1m^2$마다 식재하여야 하는 지역별 교목 및 관목의 수량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공업,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② 지역: 녹지,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③ 지역: 상업,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④ 지역: 주거,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지역별 교목·관목 식재수량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녹지지역의 교목 기준이 0.1주가 아니라 0.2주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목은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이고, 관목은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낮은 수목이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교목 0.1주 이상·관목 1.0주 이상, 공업지역은 교목 0.3주 이상·관목 1.0주 이상, 주거지역은 교목 0.2주 이상·관목 1.0주 이상, 녹지지역은 교목 0.2주 이상·관목 1.0주 이상이다. 관목은 네 지역 모두 1.0주 이상으로 같고, 교목 수량만 지역별로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업지역은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므로 제시 내용이 맞다.

② X
녹지지역은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다.
틀린 표현: 녹지 교목 0.1주 이상
올바른 표현: 녹지 교목 0.2주 이상

③ O
상업지역은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므로 제시 내용이 맞다.

④ O
주거지역은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므로 제시 내용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녹지지역의 교목 기준을 상업지역과 같은 0.1주 이상으로 착각하면 ②를 맞는 선지로 오인한다. 이 문항은 관목 기준이 전 지역에서 모두 1.0주 이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해 교목 수량만 바꿔 놓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별 기준표는 관목 1.0주 이상이 공통이고, 교목만 상업 0.1주, 공업 0.3주, 주거 0.2주, 녹지 0.2주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녹지를 0.1주로 제시하면 바로 틀린 선지로 판정된다.

암기 포인트

관목은 전 지역 1.0주, 교목은 상 0.1·공 0.3·주 0.2·녹 0.2이다.

NoteBase

문 7.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 기준으로 (가)와 (나)를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배수층의 두께는 제외한다)

교목: (가) 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나) 센티미터 이상)

① (가): 15, (나): 10

② (가): 30, (나): 20

③ (가): 45, (나): 30

④ (가): 70, (나): 60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 기준 중 교목의 최소 토심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수종별 최소 토심과 인공토양 사용 시 완화되는 수치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식재토심 =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토양의 깊이이다.
인공토양 = 자연토 대신 경량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토양으로, 같은 수종이라도 기준 토심이 일부 완화된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15조제1항은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을 배수층 두께를 제외하고 정하도록 한다. 교목은 70센티미터 이상이고, 인공토양을 사용하면 60센티미터 이상이다. 소관목은 30/20, 대관목은 45/3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15/10으로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5센티미터와 10센티미터는 교목 기준이 아니라 초화류 및 지피식물 기준이다.
- 틀린 표현: 교목 15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10센티미터
- 올바른 표현: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10센티미터이다.

② X
- 30센티미터와 20센티미터는 교목 기준이 아니라 소관목 기준이다.
- 틀린 표현: 교목 30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20센티미터
- 올바른 표현: 소관목 30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20센티미터이다.

③ X
- 45센티미터와 30센티미터는 교목 기준이 아니라 대관목 기준이다.
- 틀린 표현: 교목 45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30센티미터
- 올바른 표현: 대관목 45센티미터, 인공토양 사용 시 30센티미터이다.

④ O
- 「조경기준」상 교목은 70센티미터 이상이고, 인공토양 사용 시 60센티미터 이상이다.
- 따라서 (가)는 70, (나)는 6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수종별 토심 수치를 세로로 외우지 않고 대충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③의 대관목 45/30과 ④의 교목 70/60을 바꾸어 기억하는 함정을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토심 문제는 식물 크기 순서대로 수치를 대입하면 된다.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10, 소관목 30/20, 대관목 45/30, 교목 70/60 순서로 보고, 가장 큰 값이 교목 기준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토심은 식물 크기순으로 15-30-45-70, 인공토양은 10-20-30-60이다.

NoteBase

문 8.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단은?

◯ 모전화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 정형식 정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 키가 작고 오래 피는 꽃들을 도안된 무늬에 따라서 배식한다.

① 경제화단
② 노단화단
③ 수재화단
④ 화문화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전화단이라고도 하는 화문화단의 정의와 다른 화단 유형의 구별 포인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화단은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중시하여 실용적으로 조성하는 화단이다.
노단화단은 경계나 길가를 따라 좁고 길게 띠 모양으로 조성하는 화단이다.
수재화단은 연못이나 수변 주변에 수생식물·습생식물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화단이다.
화문화단은 모전화단이라고도 하며 정형식 정원에서 키가 작고 개화기간이 긴 초화를 도안된 무늬대로 배식하는 화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제화단은 관리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화단이다. 제시문처럼 모전화단이라고 부르고 정형식 정원에서 도안 무늬를 만드는 화단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경제화단이다. 올바르게는 화문화단이다.

② X
노단화단은 경계선을 따라 띠 모양으로 길게 조성하는 형식이 핵심이다. 제시문은 띠 모양 경계 식재가 아니라 문양을 만드는 화단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노단화단이다. 올바르게는 화문화단이다.

③ X
수재화단은 물가나 수면 주변 환경에 맞춘 화단이다. 제시문에는 수변 조건이 없고, 오히려 정형식 정원에서 작은 초화를 무늬대로 심는다는 점이 중심이다.
틀린 표현은 수재화단이다. 올바르게는 화문화단이다.

④ O
화문화단은 모전화단이라고도 하며 정형식 정원에서 많이 쓰인다. 키가 작고 오래 피는 꽃을 도안된 문양에 맞추어 배식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꽃의 크기와 개화기간만 보고 일반 초화 화단으로 넓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 문항의 결정어는 모전화단, 정형식 정원, 도안된 무늬이며,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화문화단으로 좁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단 유형 문제는 먼저 식재 목적과 배식 방식의 핵심어를 본다. 경제성이면 경제화단, 띠 모양 경계 식재이면 노단화단, 수변 식재이면 수재화단, 도안 무늬를 만드는 정형식 식재이면 화문화단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전=화문, 띠 모양=노단, 물가=수재, 관리비 절감=경제이다.

NoteBase

문 9. 조경수의 어린 잎, 생장점이 있는 어린 가지에서 결핍 현상이 먼저 관찰되는 무기양분은?

① 인

② 질소

③ 칼슘

④ 마그네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기양분의 체내 이동성에 따라 결핍 증상이 오래된 잎에 먼저 나타나는지, 어린 잎과 생장점에 먼저 나타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동성이 큰 양분은 부족할 때 기존 잎의 양분이 어린 조직으로 재이동하므로 결핍이 오래된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매우 낮은 양분이어서 새잎, 생장점, 어린 가지처럼 계속 자라는 부위에서 결핍이 먼저 드러난다.
인은 이동성 양분이고, 질소도 이동성 양분이며, 마그네슘도 이동성 양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은 체내 이동성이 큰 양분이므로 결핍 증상은 오래된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인을 어린 잎과 생장점에서 먼저 결핍이 보이는 양분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인 결핍은 하엽에서 먼저 나타난다.

② X
질소도 이동성이 큰 양분이므로 결핍 시 기존 잎의 질소가 새 조직으로 이동한다. 틀린 표현은 질소를 어린 조직 결핍형 양분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질소 결핍은 오래된 잎의 황화가 먼저 나타난다.

③ O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매우 낮아 새로 자라는 조직으로 외부 공급이 끊기면 어린 잎과 생장점에서 바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생장점 부근의 생육 정지, 어린 잎의 기형, 조직 괴사 등이 대표적이므로 정답이다.

④ X
마그네슘은 비교적 이동성이 큰 양분이므로 부족하면 오래된 잎에서 먼저 결핍이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마그네슘을 생장점 결핍형 양분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마그네슘 결핍은 하엽의 엽맥간 황화처럼 오래된 잎에서 먼저 관찰된다.

오답 포인트

질소, 인, 마그네슘 모두 식물 생육에 중요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어린 조직에서 먼저 결핍이 나타날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양분의 중요도가 아니라 체내 이동성 여부를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핍 부위가 어린 잎, 생장점, 새가지이면 이동성이 낮은 양분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결핍 부위가 오래된 잎이면 이동성이 큰 양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하엽 먼저는 이동성 양분, 생장점 먼저는 비이동성 양분이며 칼슘은 생장점 결핍형 양분이다.

NoteBase

문 1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만경류는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는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교목류는 '수고 $H(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④ 묘목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의 수목규격 표시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교목류, 관목류, 만경류, 묘목의 기본 규격표시 조합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이다.
근원직경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 직경이다.

핵심 구분

교목류는 원칙적으로 수고와 흉고직경으로 표시한다. 관목류는 수고와 수관폭이 기본이고, 만경류는 수고와 근원직경이 기본이다. 묘목은 수간길이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만경류의 기본 표시는 수고와 근원직경이다.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을 지정하거나 수관길이를 함께 쓸 수 있으나, 수관폭이 기본 항목은 아니다.
틀린 표현: '수관폭 W(m)'
올바른 표현: 만경류는 기본적으로 '수고 H×근원직경 R'로 표시한다.

② X
관목류의 기본 표시는 수고와 수관폭이다. 흉고직경은 교목류의 대표 규격요소이므로 관목류의 기본 표시에 넣는 것은 틀리다.
틀린 표현: '수고 H(m)×흉고직경 B(cm)'
올바른 표현: 관목류는 '수고 H×수관폭 W'로 표시한다.

③ X
교목류의 기본 표시는 수고와 흉고직경이다. 가지수는 줄기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 측정이 곤란한 관목류에서 중요하게 쓰는 요소이다.
틀린 표현: '수고 H(m)×가지수(지)'
올바른 표현: 교목류는 기본적으로 '수고 H×흉고직경 B'로 표시한다.

④ O
묘목은 수간길이와 묘령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표준시방서의 묘목 규격표시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수종군별 기본 측정항목을 서로 바꿔 끼우는 데 있다. 특히 교목류의 흉고직경, 관목류의 수관폭, 만경류의 근원직경을 뒤섞으면 ①~③에서 쉽게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격표시 문제는 수종군별 기본 조합부터 본다. 교목류는 H×B, 관목류는 H×W, 만경류는 H×R, 묘목은 수간길이+묘령이라는 틀에 선지를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교목은 H×B, 관목은 H×W, 만경류는 H×R, 묘목은 수간길이+묘령이다.

NoteBase

문 11. 엽면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면시비의 비료는 계면활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는 아연, 망간, 구리 등의 결핍증상을 치료할 때 엽면시비법을 사용한다.

③ 엽면시비에 사용하는 비료는 필수원소보다는 주로 에틸렌, 아브시스산(ABA) 등의 호르몬제이다.

④ 뿌리발달이 미약하거나 뿌리가 제구실을 못 하여 나무가 쇠약할 때 응급조치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엽면시비의 목적과 적용 대상, 그리고 생장조절제와 비료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엽면시비는 뿌리가 아니라 잎 표면을 통해 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시비 방법이다.
엽면시비용 자재의 중심은 질소, 칼륨, 칼슘, 철, 아연 같은 필수원소이며, 에틸렌이나 아브시스산(ABA)은 비료가 아니라 식물호르몬 계열의 생장조절물질이다.
따라서 '양분 보급'과 '생리 조절'을 구분하는지가 정답 판단의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엽면시비는 약제가 잎 표면에 고르게 퍼지고 부착되도록 전착제나 계면활성제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료를 계면활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O: 아연, 망간, 구리 같은 미량원소는 식물체 내 이동성이 낮아 결핍 부위에 빠르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엽면시비는 결핍 교정 효과가 빨라 치료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엽면시비에 사용하는 비료는 필수원소보다는 주로 에틸렌, 아브시스산(ABA) 등의 호르몬제이다'라는 표현이다. 엽면시비의 본질은 필수원소를 잎으로 공급하는 데 있으며, 에틸렌과 ABA는 비료의 주성분이 아니라 생장조절물질이다. 올바르게는 '엽면시비에는 주로 필수원소를 함유한 비료를 사용하며, 호르몬제는 엽면시비용 비료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뿌리 발달이 미약하거나 뿌리 기능 저하로 토양에서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는 잎을 통한 양분 공급이 응급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잎에 뿌린다'는 형식만 보고 생장조절제 살포와 엽면시비를 같은 것으로 섞어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엽면시비는 공급 대상이 양분인지, 생리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엽면시비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잎을 통해 무엇을 공급하는가'를 본다. 필수원소를 보급해 결핍을 교정하거나 뿌리 흡수 저하를 보완하는 내용이면 맞는 설명이고, 호르몬제를 엽면시비용 비료의 주된 성분처럼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다.

암기 포인트

엽면시비는 잎으로 양분을 보급하는 방법이고, 에틸렌·ABA는 비료가 아니라 생장조절물질이다.

NoteBase

문 12.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상 가지치기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톱을 사용하는 경우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한다.

③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한다.

④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작은 가지부터 전정하며, 가는 가지 전정 후 굵은 가지를 전정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상 가지치기 주의사항 중 절단 방법과 전정 순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전정은 수형 유지와 생육 조절을 위해 가지를 잘라 정리하는 작업이다.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은 절단 후 다음 생장을 유도하려는 눈을 뜻한다.

핵심 구분

기준은 가지치기 방법과 순서를 함께 제시한다. 톱을 사용할 때에는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자르며,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자른다. 전정 순서는 작은 가지부터가 아니라 큰 가지부터이며,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한 뒤 가는 가지를 전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톱을 사용할 때 절단면이 거칠면 상처 부위가 커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다.

② O
피해를 입은 가지는 죽은 부분만 애매하게 남기지 않고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정리해야 회복에 유리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O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이후 어느 눈을 중심으로 새 가지가 자랄지를 정해야 하므로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작은 가지부터 전정하며, 가는 가지 선정 후 굵은 가지를 선정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른 표현은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하며,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를 전정한다"이다.
이 선지는 전정 순서를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작은 가지부터 손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만들어 순서 오류를 숨긴 선지이다. 그러나 기준은 전체 수형을 먼저 잡기 위해 큰 가지와 굵은 가지를 우선 전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지치기 문항은 절단 위치, 절단면 처리, 전정 순서를 나누어 읽으면 정리가 된다. 순서를 묻는 표현이 보이면 큰 가지 우선인지, 굵은 가지 후 가는 가지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지의 중간은 육성할 눈 위에서 자르고, 전정 순서는 큰 가지와 굵은 가지가 먼저이다.

NoteBase

문 13. 광발아성 잡초가 아닌 것은?

① 개비름
② 광대나물
③ 메귀리
④ 바랭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잡초 종자의 광발아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발아성 잡초는 빛을 받을 때 발아가 촉진되는 종자이고, 암발아성 잡초는 어두운 조건에서 발아가 잘되는 종자이다. 이 문항에서는 개비름·메귀리·바랭이는 광발아성, 광대나물은 암발아성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개비름은 광발아 종자에 속하는 대표적 잡초이다. 따라서 '광발아성 잡초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정답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개비름은 광발아성 잡초이다.'이다.
2번 O: 광대나물은 암발아 종자에 속한다. 따라서 광이 있어야 잘 발아하는 광발아성 잡초가 아니므로 정답선지이다.
3번 X: 메귀리는 광발아 종자에 속한다. 따라서 '광발아성 잡초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비광발아성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메귀리는 광발아성 잡초이다.'이다.
4번 X: 바랭이는 대표적인 광발아성 잡초이다. 토양 표면 가까이에서 빛을 받을 때 발아가 잘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비광발아성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바랭이는 광발아성 잡초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광대나물은 이름에 '광'이 들어가 광발아성과 연결해 오인하기 쉽지만, 여기서의 '광'은 발아 광조건과 무관하다. 또한 개비름·메귀리·바랭이처럼 자주 묶여 나오는 광발아성 잡초 목록을 암기하지 못하면 2번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잡초 종자의 발아 광반응을 묻는 문제는 먼저 암발아성 예외종을 찾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광대나물·냉이·별꽃·독말풀처럼 암발아성으로 자주 묶이는 종이 보이면 우선 정답 후보가 된다.

암기 포인트

개비름·메귀리·바랭이는 광발아, 광대나물은 암발아이다.

NoteBase

문 14. 한지형 잔디로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Perennial ryegrass, Tall fescue
② Creeping bentgrass, Zoysiagrass
③ Zoysiagrass, Perennial ryegrass
④ Bermudagrass, Creeping bentgrass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의 대표 수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지형 잔디는 서늘한 기후에서 생육이 좋은 cool-season turfgrass이며 대표적으로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Tall fescue, Creeping bentgrass가 있다.
난지형 잔디는 더운 기후에서 생육이 좋은 warm-season turfgrass이며 대표적으로 Zoysiagrass와 Bermudagrass가 있다.
이 문항의 결정 차이축은 각 초종이 한지형인지 난지형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Perennial ryegrass와 Tall fescue는 모두 대표적인 한지형 잔디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Zoysiagrass"이다. Creeping bentgrass는 한지형이지만 Zoysiagrass는 난지형이므로, 올바르게는 "Creeping bentgrass, Tall fescue"처럼 두 초종 모두 한지형이어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Zoysiagrass"이다. Zoysiagrass는 난지형이고 Perennial ryegrass는 한지형이어서 짝이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Zoysiagrass 대신 한지형 초종이 와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Bermudagrass"이다. Bermudagrass는 난지형이고 Creeping bentgrass는 한지형이므로 한지형끼리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Bermudagrass 대신 한지형 초종이 와야 한다.

오답 포인트

Creeping bentgrass를 생육형태만 보고 난지형으로 착각하거나, Zoysiagrass와 Bermudagrass를 잔디 일반명으로만 보고 한지형 목록에 섞어 넣기 쉽다. 이 문제는 초종 이름을 외형이 아니라 기후 적응형으로 분류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초종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한지형 묶음과 난지형 묶음을 분리해 본다. Perennial ryegrass, Tall fescue, Creeping bentgrass는 한지형으로, Zoysiagrass와 Bermudagrass는 난지형으로 판단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Perennial ryegrass·Tall fescue·Creeping bentgrass는 한지형, Zoysiagrass·Bermudagrass는 난지형이다.

NoteBase

문 15. 조경수목의 동고형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낙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이른 봄에 나온 제일 어리고 연한 싹이 동해를 입어 죽게 된 것을 말한다.

③ 수목의 수간 밑동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 동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④ 정상의 끝순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8월 이후까지 시비를 한 수목에서 나타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목의 동해 유형을 피해 위치와 발생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고형: 수간 밑둥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 동해를 입는 형이다. 키워드는 주간 밑둥, 수피이다.
지고형: 낙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는 형이다. 키워드는 가지이다.
만상: 이른 봄 늦서리로 가장 어리고 연한 싹이 피해를 입는 형이다. 키워드는 봄 새싹이다.
초고형: 정상의 끝순만 피해를 받는 형이다. 늦은 시비로 연한 끝순이 경화되지 못한 경우에 잘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낙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가 핵심인데, 이는 동고형이 아니라 지고형의 설명이다. 동고형으로 고치면 '수간 밑둥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 동해를 입는 것'이다.
2번 X: '이른 봄에 나온 제일 어리고 연한 싹'이 핵심인데, 이는 동고형이 아니라 만상의 설명이다. 동고형으로 고치면 '수목의 수간 밑둥 $1m$ 이하의 수피 부분이 동해를 입는 것'이다.
3번 O: 동고형은 수목의 수간 밑둥 $1m$ 이하 수피 부위가 얼어 피해를 입는 형을 말하므로 옳다.
4번 X: '정상의 끝순만 피해'와 '8월 이후까지 시비를 한 수목'은 초고형의 전형적 설명이다. 동고형으로 고치면 피해 부위가 끝순이 아니라 수간 밑둥의 수피가 된다.

오답 포인트

동고형, 지고형, 초고형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이 문제는 용어 뜻보다 피해가 나타나는 위치를 연결하면 바로 풀린다. 가지이면 지고형, 끝순이면 초고형, 밑둥 수피이면 동고형, 봄의 어린 싹이면 만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해 유형 문제는 먼저 피해 부위를 본다. 수간 밑둥 수피이면 동고형, 가지 일부이면 지고형, 정상 끝순이면 초고형으로 판단한다. 계절 정보가 이른 봄의 어린 싹이면 만상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동고형은 밑둥 수피, 지고형은 가지, 초고형은 끝순, 만상은 봄 새싹 피해이다.

NoteBase

문 16. 「경관법」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③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④ 각 지역의 경관이 동일한 특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법」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지역의 고유성·다양성, 자율적인 경관행정,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법 문언과 반대로 바꾼 선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 경관을 계획하고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법정 기준이다.

핵심 구분

「경관법」 제3조에 따르면 경관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성', '자율성 제한', '주민 참여 제한'처럼 법의 방향을 거꾸로 바꾼 표현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관법」 제3조 제4호와 일치한다.

② O
우수한 경관의 보전, 훼손된 경관의 개선·복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의 개성 유도는 「경관법」 제3조 제5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O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민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경관법」 제3조 제2호와 일치한다.

④ X
「경관법」 제3조 제3호는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틀린 표현: '동일한 특성과 동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
올바른 표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답 포인트

④는 기본원칙의 핵심 키워드를 통째로 반대로 뒤집은 선지이다. 경관법은 지역 경관의 획일화가 아니라 고유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행정과 주민 참여도 제한이 아니라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법 기본원칙 문제는 먼저 '고유성·다양성', '자율적 경관행정', '주체적 주민 참여' 키워드가 살아 있는지를 본다. 선지에 획일화, 동일성, 제한처럼 반대 방향의 표현이 나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관법 기본원칙은 지역성·다양성·자율성·주민참여, 개발의 조화·균형, 보전·개선·복원·개성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경관분석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틸(Thiel)은 환경디자인의 도구로서 연속적 경험의 표시법을 제안하였다.

② 리턴(Litton)은 자연경관에서의 경관 훼손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③ 핼프린(Halprin)은 모테이션 심벌(motation symbol)이라 불리는 인간행동 움직임의 표시법을 고안하였다.

④ 레오폴드(Leopold)는 하천을 낀 계곡의 경관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12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들의 절대적인 경관가치를 계량화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분석 연구에서 주요 학자와 대표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틸(Thiel): 연속적 경험의 표시법을 통해 사용자의 시선과 이동에 따른 공간경험을 분석한 인물이다.
리턴(Litton): 자연경관의 시각적 취약성, 즉 훼손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이는지를 분석한 인물이다.
헬프린(Halprin): 인간행동과 이동의 흐름을 기록하는 모테이션 기법을 고안한 인물이다.
레오폴드(Leopold): 하천 경관을 여러 지점끼리 비교하여 상대적 고유성 또는 상대적 경관가치를 계량화한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틸은 환경디자인을 정지된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과정에서 경험되는 연속적 장면으로 파악했고, 이를 기록하기 위한 sequence-experience notation을 제안하였다. 선지의 '연속적 경험의 표시법'이라는 연결이 맞다.
2번: O. 리턴은 자연경관이 개발이나 인공적 변화에 의해 얼마나 쉽게 시각적으로 손상되는지를 visual vulnerability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선지의 '자연경관에서의 경관 훼손의 가능성'은 이 취지를 옳게 요약한 표현이다.
3번: O. 헬프린은 인간의 움직임과 공간 사용을 기록하기 위해 motation이라 불리는 표기법을 고안하였다. 선지의 '인간행동 움직임의 표시법'이라는 연결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절대적인 경관가치'이다. 레오폴드는 하천을 낀 계곡의 여러 대상지를 비교하여 각 요소의 고유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경관가치 또는 상대적 고유성을 계량화하였다. 올바르게는 '12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경관가치 또는 고유성을 계량화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레오폴드 선지는 '12개의 대상지역'이라는 사실 표현이 맞기 때문에 뒤의 '절대적인'이라는 한 단어를 놓치면 오답으로 넘어가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학자 이름보다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비교인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형은 먼저 학자별 대표 키워드를 붙잡고, 그다음 방법론의 성격을 확인하면 된다. 틸은 연속경험, 리턴은 시각적 취약성, 헬프린은 모테이션, 레오폴드는 비교를 통한 상대적 고유성 평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틸=연속경험, 리턴=시각취약성, 헬프린=모테이션, 레오폴드=상대적 고유성 평가이다.

NoteBase

문 18.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②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③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④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훼손 행위와 공원시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자연풍경훼손 행위는 공원 안의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시행령이 별도로 열거한 설치행위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 제20조는 입간판, 좌판대, 전신주·철조망, 비닐하우스 같은 자연풍경훼손 행위를 열거한다. 반면 공원관리사무소는 시행령 제2조의 공공시설이고, 광장·야영장·전망대는 같은 조의 휴양 및 편의시설이므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직접 열거된 자연풍경훼손 행위이다.
2번 O: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자연풍경훼손 행위이다.
3번 X: 공원관리사무소는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이고, 광장·야영장·전망대는 같은 조 제3호의 휴양 및 편의시설이다. 따라서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니다.
틀린 표현: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올바른 표현: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시설에 해당한다."
4번 O: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0조제4호의 자연풍경훼손 행위이다.

오답 포인트

공원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20조의 경관훼손 행위 목록과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 목록을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공원법령 문제에서 설치행위를 묻는 선지가 나오면 먼저 시행령 제20조처럼 금지·허가대상으로 열거된 행위인지 확인한다. 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처럼 공원 운영과 이용을 위한 시설이면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인지부터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좌판대·전신주·철조망·비닐하우스는 제20조 자연풍경훼손 행위이고, 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는 제2조 공원시설이다.

NoteBase

문 19.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① 자연공원법

② 습지보전법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개별 보전지역을 정하는 법과 계약 제도 자체를 규정하는 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계서비스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과 체결하는 계약 제도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반면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개별 보호대상이나 관리제도를 다루는 법이다.
즉 개별법은 적용 대상 지역과 보호제도를 정하고, 계약 제도의 직접 근거는 생물다양성법이 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관리 체계를 다루는 법이다. 자연공원이 계약의 적용 대상 지역이 될 수는 있어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자체를 규정하는 직접 근거법은 아니다.
틀린 표현: 자연공원법
올바른 표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② X: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습지 보전·관리 제도를 다루는 법이다. 계약이 습지 지역에서 활용될 수는 있어도, 계약 제도 자체의 근거는 아니다.
틀린 표현: 습지보전법
올바른 표현: 습지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근거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③ X: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을 다루는 법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계약 대상 지역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계약 제도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올바른 표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다.

④ O: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두는 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도 계약 체결 대상, 절차, 청약서 서식 등이 이어져 있어 이 선지가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보호대상 지역을 정하는 개별법과 계약 제도를 만든 상위 근거법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공원, 습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계약이라는 제도명을 직접 두는 법은 생물다양성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어떤 제도나 계약을 규정하는 법을 묻는다면 그 제도명을 직접 두고 있는 법을 먼저 찾는다. 개별 보호구역 이름이 보여도 그것이 제도의 근거법인지, 단지 적용 대상 지역을 정하는 법인지를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물다양성법이고, 자연공원·습지·야생생물 관련 법은 적용 대상 지역을 정하는 개별법이다.

NoteBase

문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의 종류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로당
② 야영장
③ 야유회장
④ 자연체험장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휴양시설과 운동시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설명이 비슷해 보여도 별표상 분류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휴양시설은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시설이다.
운동시설은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과 자연체험장처럼 신체활동·체험활동 성격의 시설을 포함하는 공원시설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휴양시설에는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수목원이 포함된다.
반면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기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체험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로당은 별표 1에서 휴양시설로 직접 열거된다.
틀린 표현: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경로당은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② X
야영장은 별표 1의 휴양시설에 포함되며, 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된다.
틀린 표현: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야영장은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③ X
야유회장은 야영장과 함께 별표 1의 휴양시설로 열거된다.
틀린 표현: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야유회장은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④ O
자연체험장은 별표 1에서 운동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오답 포인트

야영장·야유회장·자연체험장을 모두 자연 속에서 쉬는 시설로 감각적으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실제 느낌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의 법정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시설 분류 문제는 이름의 분위기보다 별표의 직접 열거를 먼저 확인한다.
휴양시설은 휴식 제공 시설,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이라는 구분을 잡으면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야유회장·야영장·경로당은 휴양시설이고,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이다.

NoteBase

문 21.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적공기는 공사의 직접비를 최소로 하는 최장공기이다.

② 시공관리의 3대 목표는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이다.

③ 횡선식 공정표는 작성이 쉬워 단순공사나 시급한 공사 시 적합하다.

④ 표준공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건설비가 최소로 드는 합리적인 공기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정관리의 기본 용어인 최적공기와 표준공기, 시공관리의 3대 목표, 횡선식 공정표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적공기: 직접비와 간접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공기이다.
표준공기: 표준적인 시공방법과 보통의 작업조건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준 공기이다.
시공관리의 3대 목표: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이다.
횡선식 공정표: 작성과 이해가 쉬운 공정표로 단순공사나 긴급한 공사에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직접비를 최소로 하는 최장공기'이다. 최적공기는 직접비만 최소인 공기가 아니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공기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이다. 시공관리의 3대 목표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이며 안전관리는 중요 관리항목이지만 통상적인 3대 목표의 구성은 아니다.
③ O: 횡선식 공정표는 막대로 공정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므로 작성이 쉽고 이해가 빠르다. 따라서 단순공사나 시급하게 공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사에 적합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표준공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건설비가 최소로 드는 합리적인 공기'이다. 그 설명은 표준공기가 아니라 최적공기에 해당한다. 표준공기는 표준 시공조건에서 필요한 기준 공기이다.

오답 포인트

최적공기와 표준공기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①과 ④를 함께 틀리기 쉽다. 또한 시공관리의 3대 목표에서 안전관리를 넣고 공정관리를 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적공기'가 나오면 총공사비 최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표준공기'가 나오면 표준 시공조건에서의 기준 기간인지 확인하면 된다. 시공관리의 3대 목표는 공정·품질·원가로 판단하고, 횡선식 공정표는 작성이 쉬워 단순·긴급 공사에 적합하다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적공기는 총공사비 최소, 표준공기는 기준 공기, 3대 목표는 공정·품질·원가, 횡선식은 쉽고 빠른 공정표이다.

NoteBase

문 2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60 10 : 2019)」상 친환경흙포장 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강풍화토(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한다.

② '황토'는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는 5 ~ 7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KCS 34 60 10 : 2019가 정한 친환경흙포장 자재별 규격과 품질조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재명마다 연결되는 입도 수치와 불순물 금지사항을 섞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화강풍화토(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입상토이다.
경화토는 흙에 시멘트 등 결합재를 섞어 강도와 내구성을 높인 포장재이다.

핵심 구분

화강풍화토는 5 mm체(NO.4) 통과가 기준이고, 황토는 점토성분·사력암·유기물의 과다 함유를 금지한다.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요구하며, 시멘트는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를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강풍화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다짐과 배수가 용이해야 한다는 기준과도 연결된다.

② O
황토는 반입된 재료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용 모래의 기준 입도는 5~7 mm가 아니라 1~3 mm 정도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모래의 입도 수치를 잘못 제시하였다.
틀린 표현: 5~7 mm 정도의 입도
올바른 표현: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 O
혼합토 및 경화토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모래'라는 말만 보고 대략 굵은 입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함정이다. 이 문항은 자재명 자체보다 자재별 수치 기준을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놀이터 모래의 1~3 mm 기준을 모르면 5~7 mm 같은 임의 수치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서명 인용형 자재 기준 문제는 자재명, 입도 수치, 불순물 금지사항을 한 세트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특히 마사토는 5 mm체 통과, 놀이터 모래는 1~3 mm라는 숫자 짝을 먼저 확인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마사토는 5 mm체 통과, 놀이터 모래는 1~3 mm, 황토는 과다 점토·사력암·유기물 금지이다.

NoteBase

문 23. 미국농무성법의 토양입자 크기 및 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토(clay)의 입자 지름은 0.02 mm 이하이다.

② 미사(silt)는 모래에 비해 작은 공극을 형성한다.

③ 조사(coarse sand)의 입자 지름은 1.0 ~ 0.5 mm이다.

④ 모래(sand)는 극조사, 조사, 중간사, 세사, 극세사로 세분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농무성법의 토양입자 크기 구분과 입경에 따른 공극 특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점토는 입경이 가장 작은 토양분으로 미국농무성법에서는 지름이 0.002 mm 미만이다.
미사는 점토보다 크고 모래보다 작은 입자군으로, 모래보다 작은 공극을 형성한다.
모래는 입경이 큰 토양분으로 극조사, 조사, 중간사, 세사, 극세사로 세분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0.02 mm 이하"이다. 미국농무성법에서 점토의 입경은 0.002 mm 이하 또는 0.002 mm 미만으로 본다. 0.02 mm는 점토가 아니라 미사 구간과 겹치는 값이므로 점토의 기준으로 쓸 수 없다.
2번: O. 미사는 모래보다 입자가 작아서 입자 사이 틈도 더 작게 형성된다. 따라서 모래에 비해 작은 공극을 형성한다.
3번: O. 조사의 입경 범위는 0.5~1.0 mm이다. 선지의 "1.0~0.5 mm"는 큰 값부터 적은 것일 뿐 같은 범위를 말하므로 옳다.
4번: O. 미국농무성법의 모래는 극조사, 조사, 중간사, 세사, 극세사의 다섯 등급으로 세분한다.

오답 포인트

점토와 미사의 경계값인 0.002 mm와 0.02 mm를 한 자리 잘못 기억하면 1번에 쉽게 속는다. 이 문항은 소수점 한 칸 차이를 이용해 점토 기준을 미사 기준처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경 문제는 먼저 점토 경계값 0.002 mm를 확인하고, 그다음 모래의 세분 등급과 공극 크기 관계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소수점 위치가 다르면 다른 토양분류라고 본다.

암기 포인트

점토는 0.002 mm, 미사는 그보다 크고, 모래는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NoteBase

문 24. 다음에서 설명하는 심토층 배수 방법은?

◯ 전 지역 배수가 균일하게 이루어진다.
◯ 놀이터, 소규모 운동장, 광장 등 소규모 평탄 지역 배수에 적합하다.
◯ 주관을 중심으로 지선을 양측에 설치하는데, 그 형태는 물고기의 골격과 유사하다.

① 선형
② 어골형
③ 자연형
④ 차단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심토층 배수 방식의 관 배열 형태와 적용 대상지를 보고 선형, 어골형, 자연형, 차단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골형은 주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선을 붙여 물고기 뼈처럼 배치하는 심토층 배수 방식이다.
선형은 배수관을 직선 또는 평행하게 배열하는 방식이다.
자연형은 기존 지형의 경사와 자연 유하 방향을 따라 배수하는 방식이다.
차단형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경계부에서 먼저 차단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주어진 설명의 결정적 단서는 '주관을 중심으로 지선을 양측에 설치'하고 '물고기의 골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선형이 아니라 어골형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선형이다. 올바르게는 선형은 배수관을 직선 또는 평행하게 단순 배치하는 형식이다.

② O
어골형은 주관에서 좌우로 지선이 뻗는 물고기 뼈 모양의 배치이므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규모의 평탄한 운동장, 놀이터, 광장처럼 전반적으로 고르게 배수해야 하는 곳에 적합하다는 점도 맞다.

③ X
자연형은 자연 지형과 원래의 물 흐름을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주관과 지선을 인공적으로 좌우 대칭에 가깝게 배열하는 제시문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자연형이다. 올바르게는 자연형은 지형 경사와 자연 유하선을 따라 배수 체계를 잡는 형식이다.

④ X
차단형은 외부에서 흘러드는 물을 상부나 경계부에서 끊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전 지역을 균일하게 배수하는 물고기 뼈형 배치와는 목적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차단형이다. 올바르게는 차단형은 대상지 전체 배수보다 유입수 차단에 중점을 두는 형식이다.

오답 포인트

전 지역 배수가 균일하다는 문장만 보고 선형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주관+양측 지선'과 '물고기 골격'이라는 형태 묘사이며, 이 표현이 나오면 어골형으로 바로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수 방식 문제는 먼저 관의 배열 모양을 본다. 주관에서 좌우로 지선이 갈라지면 어골형, 직선이나 평행 배열이면 선형, 자연 지형을 따르면 자연형, 외부 유입수를 경계에서 막으면 차단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골형은 물고기 뼈형 배치, 선형은 직선·평행 배치, 자연형은 지형 순응, 차단형은 유입수 차단이다.

NoteBase

문 25. 영국 하워드(Howard)가 제안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주변에 농업지대를 포함한다.

②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도시이다.

③ 대도시론적 계획이며 토지를 사유화한다.

④ 영국의 레치워스(Letchworth)가 대표적인 개발 사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대도시 집중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며, 토지를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구상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원도시는 대도시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자족적 신도시이다. 도시의 편익과 농촌의 쾌적성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도시 주위를 농업지대가 둘러싸는 구조를 취한다. 토지는 개인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공적 관리와 사회적 환원을 전제로 하는 점이 핵심 키워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 주위에 농업지대 또는 그린벨트를 두는 것은 전원도시의 대표적 요소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식량 생산과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확보하려는 구상과 맞는다.

② O

하워드는 도시의 고용·문화 기능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결합하려고 하였다. 전원도시는 흔히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도시로 설명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대도시론적 계획"과 "토지를 사유화한다"이다. 전원도시는 대도시 집중을 더 강화하는 계획이 아니라 과밀한 대도시를 분산시키는 분산형 계획이다. 또한 토지는 사적 투기보다 공공적 소유 또는 신탁 보유를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려는 구상이다.

④ O

레치워스는 하워드 전원도시론이 실제로 구현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후 웰윈과 함께 전원도시의 실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전원도시를 대도시 확장 논리와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토지를 사유화한다"는 표현은 하워드 구상의 핵심인 토지의 공공적 관리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원도시가 나오면 먼저 분산형 도시인지, 도시와 농촌의 결합인지, 주변 농업지대를 두는지, 토지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원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대도시 집중 강화나 토지 사유화가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하워드 전원도시는 도시+농촌, 분산형 계획, 주변 농업지대, 토지의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다.

NoteBase